

성도 여러분의 정성어린 기증품이
쌓아 올릴 한장의 벽돌이 됩니다

함께하는 가족 바자회

비빔밥·우동·빈대떡·만두·떡볶이·오텍·돈까스·영양밥·김밥
각종 전류·김치류·전과류·과일·생선·김·멸치·음료
뷰티용품·스캔케어·헌옷·화분·수공예품·액세서리
각종 잡화류·생활용품

2016년 10월 1일(토)
8:30 am - 7:00 pm



퀸즈장로교회 선교회 주최

월간 아가페 제391호 · 2016년 9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4347 Fax : 718) 358-7789

아가페 agape

새학기 특집 **자! 시작입니다**

2016 단기선교보고

장학위원회/스피치콘테스트

청년선교회 여름 수련회

클래식 캠프

자랑스런 퀸장인

2016 · 9

COMING HOME 123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예수님게로 초대합니다.
자기 자신 1명과 가족 2명, 이웃 3명을 예수님께 돌이키는
123 운동에 기도하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3일(주)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전도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퀸즈장로교회



담임 김성국 목사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갈매기의 꿈

오래 전, 리처드 바크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갈매기의 꿈”을 보았습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꿈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었습니다.
해안가의 먹이를 쫓는 갈매기의 무리에서 벗어나
저 높은 하늘을 멋지게 날아다니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그에게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높은 하늘을 나르기에는 너무 연약한 자신.
다른 선후배 갈매기들의 질서와 질타.
높은 하늘의 아름다움을 막아서는 힘들고 낯선 환경.
하지만 조나단 리빙스턴은 장애물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윗도 장애물이 아니라 목표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골리앗도 사울도 광야도 등장합니다.
다윗은 그런 장애물을 바라보고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삶의 목표를 언제나 잃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 앞의 장애물이 아니라 언제나 그 목표 자체에 집중하였습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이 높은 하늘을 날아다닐 때,
그리고 그 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닐 다이아몬드는 영화 주제곡 “Be”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And the one God will make for your way/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만들어 줄 거예요 “

이 가을, 꿈을 품고 날아오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갈매기에게도 꿈이 있었는데...



새가족환영회 안내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지하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WELCOME

2016년 8월 새가족 안내

Korean Ministry



고 대곤
3-Y-2 / 청년선교부



정크리스티나
3-Y-2 / 청년선교부



이 청숙
2-F12-1 / 다비다



강경태-이숙열
3-FM2-1 / 아글라-브리스가
이소현(대학부) 이선우(유아부)



최영운-Yin Xiao
1-Y-2 / 오한-보보 최지은



김광연-장복화
4WS-1 / 갈렙-브리스가



최 항 분
2-F12-4 / 청년 선교부



이 주 혁
2-MT-2 / 청년선교부



조 정 숙
3=BS1-2 / 안나



장(세)원
2-F7-1 / 에스더 장민희(영아부)



박 지 수
1-Y-2 / 청년선교부



심 권 우
2-Y-1 / 청년대학부



최수림, 최란
3=Y-2 / 청년선교부



이 신 혜
4-Y-3 / 청년선교부



진 현 정
4=Y-1 / 청년선교부



박 주 현
3=Y-2 / 청년선교부



Nazira



Nazira

Chinese Ministry



张宇雯



彭晓玲



朱云



王瑞英



程建明



郭侨娟



刘翠琴



安桂玉



施文燕



曹珍



李秀凤



李长英



林忠梅



宋菁华



宋菁华



宋菁华



董悦



赵金燕



刘露曼



周斯亮



朱秀芹



李宝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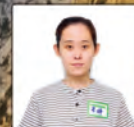
李敏



林美娟



赵礼霞



董



陈



施志翔



管



刘新爱



申英爱



松



叶爱凤



马



高



李淑方



李佳慧



Jason Zhang



洪其标



李文彬

The Dream of a Seagull

A long time ago, I saw a movie that was based on the novel, “Jonathan Livingston Seagull” by Richard Bach. In the novel, the main character, Jonathan Livingston dreams that he is a seagull. In his dream there are groups of other seagulls who spend their days simply pursuing food on the seashore, using their wings only to pursue food. In his dream, Livingston chooses to go beyond the other seagulls, flying not simply to survive, but flying for the sheer thrill of soaring through the skies.

He faced many obstacles, and he himself was too weak to fly so high in the air. His fellow seagulls, old and young, were either jealous of him, or criticized him. Throughout the novel he faces a great number of external obstacles to his goal of pure flight, however, Jonathan Livingston does not give up the pursuit of his goal. He focuses not on as obstacles, but rather his goal.

We see that the David of the Bible, similarly focuses not on the obstacles in his life, but rather the goal of his life. Throughout his life, David faced many faced many great obstacles such as the giant Goliath, king Saul, and surviving in a desert while on the run. However, he did not lose heart, he did not devote time dwelling on the obstacles in his life, but rather he focused on his goal, glorifying God.

We too, much model this kind of mentality. Focusing on our goals, not on our struggles and obstacles. If we look at those people who leave legacies in this world, we see a pattern of behavior, that they all had exceptionally clear goals, that they were fully focused on the goals, and that they chose not to focus in on their obstacles and difficulties.

In the film adaptation of the Jonathan Livingston novel, there comes a point when “Be” by Neil Diamond begins to play. In that song there is the lyric, ‘And the one God will make for your way.” We may face various struggles in the pursuit of our goals, and like Livingston we may find it difficult to fly when there are so many things try to weigh us down. Let us remember then, what Neil Diamond reminds us of, that God will make a way for us, he will make a way towards the sky for us, that we might fly.

In this Fall season, let us be dreamers. Why don’t we be those who dream, have a goal, and fly through the heavens. Afterall, even seagulls dream.

海鸥乔纳森

很久以前，我看过一部从小说改编的电影，“海鸥乔纳森（天地一沙鸥）”，作者李查.巴哈。在小说中，主角乔纳森梦见自己是一只海鸥。在他的梦里，有一群海鸥每天都只是在海岸上找食物，翱翔着翅膀只为了追捕食物。在梦里，乔纳森选择越过其他的海鸥，让飞翔不单止为了生存，而是全然兴奋地翱翔在空中。

他面临许多障碍，而他自己也太虚弱于飞翔在高空中。他的海鸥同伴，老的和年轻的，不是嫉妒他就是批评他。在整个故事中，他为了单纯的飞翔而面对了大量的外在障碍。然而，乔纳森并没有放弃追求他的目标。他的专注不是在那些障碍，而是在他的目标。

我们看到圣经里的大卫，同样也是不看他生命中的障碍，而是专注在他生命中的目标。在他一生中，大卫面临了许多巨大的障碍，如巨人歌利亚，扫罗王，和在逃跑时在沙漠的生存。然而，他没有失去勇气。他没有将自己沉浸在生命中的障碍，他反而是专注在他的目标，荣耀神。

我们也一样，要以这样的精神为榜样。专注于自己的目标，而不是自己的挣扎和障碍。我们若看那些在这世上留下传奇的人物，我们会看到一个态度的典范，就是他们都有极度清晰的目标，而他们都全神贯注于自己的目标，和选择不去专注在他们的障碍和困难。

在海鸥乔纳森小说中有一曲“Be”由尼尔.戴蒙写作演唱。歌曲中有一段词“那独一的神会为你开前方的道路”。我们在追求自己的目标时可能会遇到不同的挣扎。如乔纳森，我们或许觉得有很多沉重东西让我们无法继续飞翔。但我们记住这点，就是尼尔.戴蒙提醒我们的，就是神会为我们开前方的路，祂会为我们开一条通往天上的路，以致我们能继续飞翔。

在这秋季，让我们都成为梦想家。何不让我们存着梦想，拥有一个目标来飞向天际。毕竟，就连海鸥也有梦想。

9월 교회행사

- 18일(주) 제113기 새가족 수료예배
- 20일(화) 성인대학 개강예배
- 25일(주) 단기선교보고예배
어와나 개강
- 28일(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10월 교회행사

- 1일(토) 건축 바자회
- 2일(주) 선교회 월례회
크리스마스 칸타타 연습 시작
- 5일(수) 지도원성경공부
- 7일(금) 구역예배
- 9일(주) 장년성경공부 1
- 16일(주) 장년성경공부 2
학습, 유아, 입교, 세례 교육 시작
- 17일~22일 추계특별새벽기도 부흥회
- 23일(주) 'Coming Home 123'
전교인 전도대회-행복예의 초대-
장년성경공부 3
- 26일(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 30일(주) 장년성경공부 4



월간 아가페 제391호 목차

- 2 신앙시론 · 갈매기의 꿈 | 김성국 목사
- 5 목상의 글 ·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 유준 집사
- 6 담임목사 설교요약

2016 단기선교보고 특집

- 8 케냐 · Christ was center of our team | Jinny Kim
- 10 필라 · God is doing great things
all around the world | 배형민 목사
- 12 인도 · God showed us and commanded us | SaePark
- 14 캄보디아 · 캄보디아 민족에게 부흥을 | 차상남 집사
- 16 할렘 · 전도에 대한 도전 | 편집부
- 18 스피치 컨테스트·복음이란 무엇일까요? | 박재상 청년
- 20 전교인전도대회 · 행복예의 초대 - 집으로
- 22 새학기특집 '자! 시작입니다'
- 22 대학에 첫 발을 내 딛는 아들에게 | 최성은 집사
- 23 가을은 내가 또 우리가 살찌는 계절 | 김홍덕 권사
- 24 제자훈련·영성훈련을 시작하며 | 홍승룡 장로

2016 퀸즈성인대학 가을학기를 맞이하여 | 이양미 전도사

- 25 열린유아원 가을학기를 시작하며 | 이명옥 전도사
- 26 "1>100, 1이 100보다 큰 이유" | 최원일 집사
- 27 어와나 · Growing seeds into trees.. | 차평화 전도사
- 28 클래식캠프
Being Part of Something Great! | Karis Park
After Summer Music Camp | Serene Sung
- 30 QPEM · The Blessed Start | Shen De Guia
- 31 신앙시 · 주님께 드리는 3분의 호흡
- 32 중국어 예배부 · 现在的我,全是上帝的恩典 | 金三喜
- 35 특별활동위원회 헌신예배 | 편집부
- 36 청년선교부 여름수련회 ·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 37 자랑스런 퀸장인 · 대통령상 수상 최윤희 권사
- 38 8월 등록 새가족 안내

걱정 · 근심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밭에 씨 뿌려 놓고
행여 싹 안 날까 걱정하고
싹트니 여린 이파리들
바람에 질까 근심하고

뜨거운 여름 한 낮
쏟는 땀방울에 시들까 근심하고
생생하던 꽃 지고 잎 지면
쭈정이 열매일까 걱정하고

길이 참고 참으면
때 맞춰 내려 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에다
햇빛이랑 바람으로
무장무장 키워주시련만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유 준 집사

그래요, 우리 몸이며 영이며 남께 맡기자구요.

코뚜레도 고빼도 풀어 주시고, 멍에도 쟁기도 풀어 주시어,
엄마가 어린 아기 젖가슴에 품 듯 단디 챙겨 주실 거구만요.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잔잔히 잦아들어요.
여유하면 온 몸에 생기가 생생 돌지요.
시든 씨란 씨는 모두 부화되고 죽어가는 생명이 되살아날 거구만요.

님은, 창세 이전에 씨를 준비하셨대요.
물에는 물씨
불에는 불씨
흙에는 흙씨
꽃에는 꽃씨

씨를 뿌려야 시작이지요, 과연 당신은 씨를 뿌리셨나요? 믿음이라는 열매는 잘 익었나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키우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님! 우리, 하나님....

8월14일 / 다니엘 6:10-15

결코 바꿀 수 없는 삶

다니엘의 삶의 특징은 “전에 하던 대로” 이다. 환난과 핍박으로 무섭게 변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그곳에 이를 때까지 타협하지 않고 일관된 믿음의, 기도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야 할, 결코 바꿀 수 없는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1. 열린 삶

다니엘의 열린 삶은 세상을 향한 현재 속하여 있는 화려한 바벨론, 메데 바사가 아니라 먼 곳 예루살렘에 두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문을 열었다(단 6:10a)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곧 하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전자의 신앙은 자기중심, 이 땅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이유도 자기의 잘됨과 성공에 있다. 초월의 세계, 신비한 세계, 능력의 세계를 갈망하지도 않는다.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고 하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땅의 사람으로 다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다.

반면에, 하늘을 열고 사는 신앙인들은 소망이 하늘에 있기에 말과 보는 것, 스케일이 다르다. 어떠한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는다(눅 9:28-29). 하늘 문이 열리면 이 땅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의 빗줄기를 누리게 되고 의의 빗줄기를 맛보게 된다.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성도, 하늘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2. 질긴 삶

다니엘에게는 승리가 습관이었다(단 6:10b)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것. 다니엘이 매일 3번씩 기도와 감사를 드렸다면 일 년에 1,095번을 기도하고 70년을 했다고 하면 76,650번을 했다. 환경이나 제도를 탓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감사의 습관을 놓지 않는 이 거룩한 습관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질긴 삶을 살았다. 본문에 무리들도 하루에 두 번 자기 왕에게 나가 다니엘을 죽이라고 참소하였다. 어둠의 세력도 자기 일에 부지런하다, 그리스도인은 마귀보다 더 부지런하고 질겨야 영적으로 승리한다(고전 9:24-25).

3. 붙은 삶

다니엘과 하나님 관계를 성경의 세상 사람들은 ‘그의 하나님’ , ‘자기 하나님’ 이라고 묘사한다(단 6:10c-11). 다니엘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다. 주님에게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요 15:4-5).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것을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며 깨달았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하루는 자기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였다. 오직, 다니엘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모든 것을 꺾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에 있었고 변치 않는 삶을 일관할 수 있었다. 변함없는 삶을 살자. 하나님께 꼭 붙은 삶을 살자.

8월21일 / 다니엘 6:16-28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

본문에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진 그곳에서 그의 무기는 믿음이었다. 본문 23절에 사자 굴에서의 다니엘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한다(단 6:23).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살피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실제적인 믿음이며 아주 담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자기 머리터럭 하나도 상하지 못함을 믿었다(마 10:28-31). 다니엘이 고난 가운데 보여준 담대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세 가지 열매를 살펴보자.

1. 하나님께 영광

평소에 다니엘 삶의 중심은 그의 소중한 하나님이었음을 직속상관이었던 왕도 알고 있었다(단 6:16, 20).

그러므로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하자 왕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였다.

다니엘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그의 언어가 밝고 긍정적이고 당당하였다(단 6:21-22).

한 사람, 다니엘이 사자 굴에서 보여준 믿음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단 6:25-27).

다니엘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였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롬 5:2).

2. 원수에게 패배

예수님의 고난과 다니엘의 고난은 죄 없이 당한 고난이었다. 원수들이 이것을 꾸짖을 뿐이다(단 6:22).

바울에게 어려움의 시간은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빌 3:10).

다니엘에게 사자 굴은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자리였다.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반전을 일으킨다. 예수님 편에 있는 자가 승리하고 그 원수가 망하는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 자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전이 일어나는데 나를 그 자리에 집어넣고 나를 해하려했던 원수들이 망하는 것이다. 모르드개와 하만의 이야기도 반전의 이야기이다(에 7:9-10).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원수들은 믿음의 사람 앞에서 사라진다. 욕망, 미움, 절망 모든 원수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앞에서 사라진다.

3. 자신에게 형통

어려움 가운데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원수를 망하게 하며 자기에게 형통을 가져다준다(단 6:28).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여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다른 자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형통이다. 요셉이 그 시대에 형통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어 여호와의 복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창 39:2-5) 다니엘도 그의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의 복을 나누는 자가 되었다.

우리도 우리시대에 믿음으로 살아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한다.

8월28일 / 다니엘 7:1-14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본문의 시간은 다니엘서 6장의 연결이 아니라 전에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다. 본문 첫 부분에 그려진 바다에서 올라온 사자, 곰, 표범과 같은 짐승 그리고 놀랍고 무서운 강한 열 뿜이 있는 짐승으로 이 네 큰 짐승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니엘은 세상의 왕에 대한 환상(단 7:17)뿐 아니라 하늘의 왕에 대한 환상(단 7:9a, 7:13)을 보았다. 인자 같은 이(성자 예수님)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왕좌에 앉아 계신 이(성부 하나님)에게 나아간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 나라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바른 하나님을 알고 하늘을 바라보아야함을 깨닫도록 하자.

1. 영원의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에도 계셨다. 그는 언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존재해 계셨다. 모

든 사물과 사람, 사건에는 시작이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으시다. 누가 존재하라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존재해 계셨다.

“영원” 이란 단어에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시 90:1-4). 영원하신 하나님 눈앞에 인생은 티끌 같으며 천년도 한 점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다 지켜보신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으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도우셨지만 앞으로도 넉넉히 도우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도 유일한 소망이시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그의 백성들을 잘 도우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2. 영광의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를 사랑하심으로 영광을 주셨다(단 7:14).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단 7:9-10). 항상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다우시며 위엄이 있으시다. 옛적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항상 열심히 자세히 드러내신다. 사람이나 사물이나 모든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다(사 43:7, 시 19:1)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길 원하시며(롬 5:2) 찬양하길 원하신다(롬 11:36).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알려주신다.

3. 영생의 하나님

본문에 등장하는 짐승들의 생명의 연한은 정해져 있으나(단 7:12)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각처에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어(단 7:14) 영생을 주셨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라고 주시는 영생은(단 12:1-2) 그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옛적부터 계획되어 있으셨다(단 1:1-2).

내가 받은 구원과 영원부터 계획된 영생의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히 2:3). 내가 받은 구원과 영생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를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송축해야 한다. 영생의 하나님이시다. 내게 주신 영생을 생각하며 감사하자.



KENYA



Christ was center of our team

Jinny Kim

And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Then I said, "Here I am! Send me." (Isaiah 6:8) All the members of our Kenya Team this summer answered this call as prophet Isaiah did. Our journey to Kenya itself testifies of God's majesty, but even our journey before getting to Kenya was only by God's grace. God sovereignly brought together five individuals together (Pastor Kiwi Jin, Mark Im, Jae Jeong, Jinny Kim, Elizabeth Shim). Through difficult training and preparation leading up to missions, God really began to unify our team to love and work together like a well-oiled machine. Every individual brought different gifts to the table that allowed for all of us to serve the children in Kenya.

Our ministry in Kenya consisted of children's ministry. We went to both public and private schools in Narok and Ol- orropil which are two major regions in Kenya. We led VBS programs that began in worship and preaching the Word. We invited students to pray and dedicate their lives to Jesus and many answered as God called these children to Him. We usually followed with games, activities, and crafts that continued to teach the message of Christ and what it means to be a follower of Jesus after worship and preaching.

As we were preparing for missions, we were originally told to prepare for approximately 600 students. We were constantly in prayer as a team as we knew that we could not accomplish this missions trip as a five-member team. God reminded us through the Bible with the story of Gideon. We hoped in God's Word that he would use the few members on our team to do amazing work with 600 students. However, when we got there, we encountered almost 1000 stu-

dents in just the first week. We encountered another 1000 students in the second week. However, by God's grace we were able to use the supplies we brought and have enough for all 2000 students!

Prayer Requests!

1. Please continue to pray for all the seeds that were planted in the 2000 students. Please pray that the Holy Spirit would grow these students to become faithful disciples for the Kingdom of God.
2. Please pray for the nation as there are an outburst of fires in local school all throughout the nation. Pray for peace and healing for all those children that got hurt from the fires!

"The only reason why this missions was such a success was because Christ was the center of our team. Christ is the glue that held the team together and used this team of weak individual to become one body. I'm very proud to be part of this team. And I know Christ is doing great things in Kenya and in us all." (Mark Im)

"Throughout the span of the two weeks, each and every day that we had dedicated to serving the Lord was not in vain; the children reciprocated the love that we showed them and that love was used to bring Him glory. Our time in Kenya had taught me a lot; it taught me what it means to grow in faith, what it means to love as He has loved us, and what it means to act in accordance of bringing Him glory above all else. I look back at my time in Kenya and I find that though I am imperfect in His kingdom, I have been renewed in the spirit of my mind."



PHILLY

God is doing great things all around the world

David Bae 배형민 목사

Inner-city missions is admittedly not the most glamorous of destinations for missions. Oftentimes, there is a stigma attached to the idea of inner-city missions. Whenever people speak of missions trips to the inner-city, there is always an implied, or an expressed, “just” attached to the sentence. “They’re just going to the inner-city,” “It’s just inner-city missions.” The implication is that there’s something about inner-city missions that just isn’t as difficult, or as impressive as going to a foreign country such as China, India, or Cambodia. This is something that I have seen expressed by various members in our church, and I myself have been guilty of at some point in my life.

Chances are, we’ve all thought that at some point. Because we have a habit of equating suffering, with holiness. A person who is willing to suffer for the faith, is in one sense holier, and giving God more glory than a person who has great joy for the faith. When we see people in prayer, or in worship, who is the person that we hold-up as a model of faith to be admired and replicated? The one with tears streaming down their face, or on their knees with their face buried in the ground in repentance. We love to hear stories of missions in foreign countries, far away from the United States, but we don’t often hear and celebrate of the missions field that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is was my second time leading the Philadelphia Inner City Missions trip, and I have seen God move in the hearts of those that we have ministered to here, and in the hearts of those who came to minister. Reflecting on this stigma of

inner-city missions compared to other missions trips has made me reflect upon the nature of testimonies. We tend to think that what makes a testimony great, are the details, the circumstances, the unique and difficult struggles that an individual overcomes in order to glorify, or come to believe in God.

But friends, this cannot be the case. It is not the individual circumstances we endure and overcome that make a testimony amazing, it is the God who brings an individual through those circumstances that makes a testimony amazing. It is not how difficult our struggle was on the missions field that makes our missions testimony great, it is the God that made us go into the missions field that makes our missions testimony great. It is not our story that is important, or our circumstances, it is His story, and His circumstances. God is doing great things all around the world, I have witnessed it firsthand as a pastor, as a student of Christ, and as a Christian. In Philadelphia we saw students who were once enemies become brother and sister, we saw strangers become family, and we saw hearts that were once cold like stone towards the gospel, be transformed to flesh, willing to bleed for our fellow brothers and sisters. But through all this, we remember, and we are grateful, not for our struggles or difficulties, but for the God who’s grace works in the midst of our struggle, to bring much and great blessing.

May God continue to bless His church, and continue to multiply his fame and glory around us, for us, through us, and in us. Sola Gratia.

God showed us and commanded us

Sae Hee Oh-Park

After a thirteen hour flight, three hour layover, another three hour flight, and then a four hour drive, we finally arrived to Khammam, India in the wee hours of the morning. Our long anticipated mission trip was about to begin. We were all excited and ready to start God's work. This is what we had prepared for; the past three months were filled with long days of practice and learning skits, praise songs, VBS, and body worship. Although we were tired and exhausted our bodies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t giving us the energy to tackle on the task we had ahead of us. So much had gone into this trip even the numerous prayer warriors and the church who has allowed us to make all this possible.

We began with the opening worship on the first day we arrived. The church of the United Gospel Assembly along with our team praised God for nearly three hours.

"It was truly a spiritual rest for me. I felt God's presence during the worship. I was able to praise Him and listen with an open heart to Pastor Peter's message on John 21. I had no other obligations pressing me. I was able to just relax, enjoy and rest during the whole worship. It was truly liberating, without any time restrictions." (Kyung Ae KSN)

We learned that our worship with God is not about just going through the waves it really is about finding rest in Him. Rarely in NYC do we spend a three hour service praising and worshipping our Heavenly Father. We find replenishment and refreshment in Him when we are depleted of our resources. How amazing that a time of extended worship can provide so much insight and renewal in our lives.

After a much spirit filled day of praising God our evenings were filled with preparations for the next day. Day two was the beginning of the Pastoral Conference and Evangelism

Explosion led by Pastor Peter Kim and Deacon Jonathan Hong. As well as the VBS – Hope for Kids led by Kyung Ae KSN, Sister Ki Jung Ryu, Sister Esther Kim, and myself. We were all excited to begin as we had so much planned for our children and the Pastors. We had 60 Indian Tribal Village Pastors and Church leaders attend the conference. Utilizing the morning sessions for the Pastoral messages and teachings, and the afternoons were filled with Evangelism Explosion training. Many of the Pastors and leaders level of spiritual maturity varied, some were very knowledgeable and others not so much. After seeing this, God's grace was really using Pastor Peter and Deacon Jonathan to drive home the basics. The Gospel of Jesus Christ.

"God used Pastor Peter in a truly mighty way to provide Discipleship Leadership Training at the conference. He laid out the key principles for establishing Discipleship Training at their Village Churches... Pastor Peter emphasized raising up the few core Church members as true Disciples of Christ, just like Jesus did in His 3 years of ministry." "By God's grace, all the attendees made the decision for Christ and prayed the Prayer of Salvation in Christ alone. It was a powerful time of renewal for many and for some, maybe the first time they truly met our Savior." (Deacon Jonathan Hong)

How incredible is it to see Gods power in transforming the hearts of others right before our eyes. We praise God all the glory for it is only through Him we are able to accomplish such works. We may never see these Pastors again and this may have been the only opportunity for them to hear the Gospel. However knowing that we have shared the word of Jesus Christ, we pray that the seed in the hearts of these leaders allows them to flourish onto the villages and cities that they lead.

As the Pastoral Conference was firing up, so was the VBS-Hope for Kids. There were about 64 children and 6 teach-



ers in India who attended the Hope for Kids VBS. Many of the children are from low caste systems or poor families. They are born into a life of few opportunities and many are from broken or struggling families. Many of them live at the children's home not receiving much education and only the most basic meals to sustain themselves. The children's parents have low incomes, or are divorced and no longer able to care for them.

We always started our days in Praise and Prayer, by our Sister Esther Kim. The children truly loved to sing, they are most joyful when they can show us how to sing songs and shout God's name. The focus of our VBS was the Gospel in a nutshell and how we can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in our lives. We taught them in the simplest way what IS the good news. When I asked the children if you were to die today and God asked you why should I let you into my heaven? Many responded because I helped saved many souls or I was loving to others, and I have done many things for God. When I shared with them, there is nothing we can do and it is nothing we have done that allows us to get into heaven but it is what Christ has done. A light bulb went off in their heads.

"The weather was hot and humid, so sitting outside for 3-4 hours was not easy for the kids. But most of the kids, even little as 4 and 5 years old children sat there in the heat and listened and watched with eagle eyes. I could feel their hunger and thirst for the word of God ... I pray that each of the kids there will grow in faith and I want them to be children who love Jesus so much and are true worshipers in India. Even though they are poor and some kids are in difficult situations, I saw hope in them. In India, there is hope for kids who know Jesus Christ as our Lord." (Sister Ki Jung Ryu)

On our last day we closed with our final Worship in India and our skit. The skit that we practiced very late in advance and had undergone multiple changes and several hiccups was if anything the greatest ending to our mission here in India. The skit was a ten minute drama of the crucifixion of Jesus Christ and man's fall to sin. We had so much trouble during the practice times, we were all reluctant to perform. But God had a plan for us, even with this small drama.

"It's late, we're so tired, the sound is having problems, and I still don't know what exactly I'm doing. I thought it was best to just not do it. However, that was not God's plan that night. He had a powerful purpose for that skit and I saw the power of Gods will be done that night. This skit moved so many people in the audience and the people here are visual learners so they really got blessed from it. In the end I was so glad that we did the skit." (Sister Esther Kim)

As we winded down and headed back home, it began to rain and as we were in the car, I was thinking of all the things we needed to pack and get ready before our flight, but all I could hear from one another is praise, admiration, and applause to our Heavenly Father. Please do not get me wrong, everything did not go as smoothly as it appears from our testimonies, there were many distractions and struggles we went through as a team. But in all this, God had a greater purpose and a plan. We prepare and plan for missions several months in advance and we have our expectations and our plans and our ideas. However throughout this entire time, God showed us and commanded us, let MY will be done, and MY kingdom come. He commands us with the Great Commission, and He showed our India team, what it truly means to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ecause of this we give all glory to God and praise Him forever.

INDIA



캄보디아 민족에게 부흥을

차상남 집사

“아빠, 엄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잘 다녀왔어요? 이제 아빠, 엄마가 선교 가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집에, 꼭 가야하는 그 집에 갔다 온 느낌이야.”

어릴 때부터 선교의 길을 귀하게 받아 들여 주며 마음으로 하나 되어주는 빛나와 한얼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로 잠시 집을 비운다고 해서 단속하고 준비해 놓을 것도 없는 또 돌아 와서는 바로 주어진 생활로 이어지는 일상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마다 아내 차동미권사와 함께 떠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리며, 기도와 여러 가지 후원으로 정성들여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주신 교회와 귀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는 답입니다.

100도가 넘는 습하고 에어컨도 없는 돈 안 받는 사우나탕 같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천년을 기다리신 순박한 백성으로 욕심이 없고 행복한 선한 성품의 백성들이 모인 불교 국가이며, 우상숭배로 많은 슬픔이 있는 나라입니다.

프랑스의 지배 아래 해방을 맞이한 기쁨도 잠깐 공산주의의 참혹한 죽음의 시간 속에 몇 백 만 명의 젊은 지식인들이 잔인하게 죽어갔습니다. 이제는 자유의 물결 속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며 또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캄보디아의 꿈나무이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덧입어서 사탄과 맞서 싸워 캄보디아가 성령충만한 예배자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퀸즈장로교회에게 거룩한 도전을 허락하시며 그 땅을, 그 민족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번 단기선교팀은 이 귀한 하나님의 꿈나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수 있도록 강지영전도

사님의 책임 아래 장봉석 장로님으로 부터 임정 선교사님과 고등부 자녀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두 맨 발로 발목이 시큰 하도록 이제 좀 쉬자고 하면서도 또다시 다리 아프게 뛰고, 목이 아프게 부르짖었습니다.

선교 티셔츠가 땀에 젖었다가 말랐다는 반복하여도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의 인도 하심으로 은혜 충만하여 어린이 전도복 발과 미용 그리고 네일 사역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순결한 완전한 복음만을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왔습니다.

캄보디아 민족에게 부흥을!

우리 대한민국이 참혹하고 무지했던 전쟁과 어두운 역사를 뒤로 하고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캄보디아에도 강 같이 흐르기를 소망하며 기도 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으며 그때가 지금이며 우리 퀸즈장로교회로 인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성령의 비가 넘치어 천년이 넘도록 기다리신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6년간 중국과 카작스탄, 몽골을 여러 번 다녔지만 이곳 캄보디아 뽀얍 교회의 어린아이들은 내 눈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내 가슴속에 자리 잡아 아련한 아픔으로 또 짝사랑의 한 대상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심장, 내 가족,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캄보디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CAMBODIA



8월 30일 화요일 무더운 날씨에 퀸즈장로교회 아웃리치 활동의 하나로 할렘선교를 다녀왔다. 할렘지역 124가 Soul Saving Station Church에서 화요일 홈레스 사역으로 점심을 대접하며 예배를 보는 일이다.

이 교회는 50여 년 전 홈레스가 세운 교회로 그 창시자 이름을 따서 Billy Robert House of Hope 라는 이름의 홈레스 사역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교회 재정 문제로 중단된 위기에서 김명희 선교사의 중재로 매주 화요일에 여러 한인교회의 봉사가 계속되고 있다. 브니엘 선교회의 김명희 선교사는 Soup Kitchen 사역을 올해로 이곳에서 18년 째 담당하고 있다.

아침부터 루디아선교회 중심으로 여선교회 회원들이 불고기를 준비하여 김성국목사님의 축도를 받은 69명의 선교대원들이 차량 5대에 나뉘어 할렘으로 출발하였다. 뉴욕에 35년 동안 살았어도 할렘지역엔 처음 간다는 최정우권사님.

교회 앞 작은 파킹장에 차를 세우고 가져간 음식과 스낵을 교회 지하실 식당으로 옮겼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처음 참여하여 무엇을 도와야 할지 몰랐으나 차츰 일의 순서를 알게 되었다는 경배와 찬양팀으로 참가한 이지연청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에 우선 충격을 받았고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다는 대학부의 박경란 청년.



전도에 대한 도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유 시간을 가지며 식사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 복음제시를 하였다. 화기에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며 제시하는 복음을 듣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팀도 있었다. 어깨를 두드리며 형제와 같은 반가움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고, 어에콘 없는 지하실의 답답함과 흐르는 땀에도 상관없이 전도현장에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하였다.

배형민 목사님의 리더로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었다. 회중들의 진지한 태도에 놀랐으며 찬양을 모르면서도 열심히 나눠 드린 가사를 보며 따라하는 모습에 자신이 더 은혜 받았다는 정지연청년, 연약함에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의 확신에 찬 큰 아멘 소리로 찬양함에 은혜를 받았다는 송순애권사, 박경란 청년은 점점 커지는 그들의 찬양소리에 마음이 떨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고 하였다.

G2G 찬양을 인도하신 소유영전도사님은 어린이 찬양이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분위기를 느끼며 비록 적은 수의 찬양이었어도 영혼을 치유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고 하셨다. 찬양에 은혜를 받고 흐느끼는 여자 분의 손을 서로 잡아주며 의지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찬양곡에 맞춰 고전무용 부채춤과 소고춤으로 섬긴 그레이스 선교무용단은 무엇보다 선교에 참여함에 감사하며 선교현장에서 선교에 빛진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 한국 선교팀의 특

색을 조금이라도 더할 수 있었음이 보람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박성권 전도사님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주셨다. 구원 받은 자가 얻는 영생의 선물에 관한 집약되고 힘 있는 설교는 그들이 마음을 열어 눈물 흘리며 손을 들어 아멘 하며 은혜에 젖게 하였다.

설교 후 결신자를 강대 앞으로 초청할 때 많은 수의 사람이 나와 놀라웠으며 그들의 순수한 모습에 우리가 더욱 은혜를 받았다. 서로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에서 같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다. 몇몇 결신자는 계속 설교자를 따라다니며 질문하는 모습도 보였다.

맛있는 불고기 덮밥을 나누고 작은 사랑에 즐거워하는 모습과 출입구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또 와 달라며 내미는 손을 마주잡으며 다음 해에는 더 많은 교인들에게 권면하여 동참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이번 리치아웃에서 배운 중요한 것은 직접 전도현장을 대면한 많은 대원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언어의 부족함과 스스로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통감한 것이다. 전도 폭발 등 전도제시 방법의 훈련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으며 전도현장에서의 팀워크의 중요성도 실제로 체험하였다. 복음자의 사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도전 받은 좋은 기회였다.

HARLEM



청년대학부 박재상
(대상 수상자)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교회에 다니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막상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한 가지 통일된 대답을 듣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면 맞는 이야기도 있지만 무언가 빠진 듯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맞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복음을 전해서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Gospel. 이렇게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행한다고 하지 않고 이루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걸까요? 어떠한 소식을 전해야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소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 소식을 잘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 죄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하며 오직 은혜로 또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을 선물 받았음을 알

려야 합니다. 창조에서 타락으로, 타락에서 구원으로, 구원에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소식을 전해야 복음을 잘 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라고 종종 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 맞다 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믿기만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행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이 아닌 복음의 두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바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면 바리새인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율법주의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보기 매우 쉽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진 해야 하지 않을까? 구원을 얻기 위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해서 그 구원을 얻으려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죄책감, 자기만족, 자기위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7 에서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join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receive 받는 것 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물 받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것 뿐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결론을 지어선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함정, 무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이미 구원 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17 에서 말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행함이 나오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 그 어떤 행위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 없이 구원을 선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구원 받은 자답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즉, 구원 받기 전의 행위와 구원 받은 후의 행함으로 갈라지는데 둘 모두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다는 진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도 상황도 그대로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왕이셨던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시어 다 잃으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돈, 명예,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세상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배울고 내 것을 아낌 없이 나누고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됩니다.

또 다른 종교처럼 내가 순종해야만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과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공허함을 채우려고 발버둥치던 삶에서 넘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부흥을 꿈꾸고 전도와 아웃리치에 힘쓰게 됩니다. 사고방식이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말씀 열심히 듣고 열심히 섬기고 전도만 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이 완전히 임하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주변의 이웃과 세상의 문화에 개입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갈등이 닥쳤을 때 너의 행동이 문제야 네 행동을 고쳐, 네 감정이 문제야 마음을 다르게 먹어 라고 말하는 세상에게 3의 길,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나누냐고요? 말로서 복음을 전하고 행함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퀸즈장로교회 제 1회 스피치 컨테스트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장학위원회가 조직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두 번의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 중에 신앙적인 인재를 찾아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할 다음세대를 길러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올해는 처음으로 스피치 컨테스트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라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과 비전을 선포할 때에 이 자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많은 시간을 드려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느라 늘 수고하는 장학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장학위원회가 앞으로 더 힘있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학위원회

2016년 10월 23일

예수님께 돌아가는 '행복에의 초대'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행복에의 초대
Invitation to Happiness
幸福的邀请

그리고 이웃

for myself
for family
for neighbors

为我自己
为我家人
为我邻居

가족...
나...

回家
집으로
Coming Home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예수님께로 초대합니다.
그 동안 교회에 안나오셨던 분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한 행복에의 초대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Coming Home 123 운동
자기 자신 1명과 가족 2명, 이웃 3명을 예수님께 돌이키는 123 운동에 기도하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 첫 발을 내 밟는 아들에게

최성은 집사

사랑하는 우리 아들 석주에게
엄마, 아빠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네가 벌써 대학에
가다니…
너를 기숙사에 이사시켜주고 헤어져 오는 차 안에서 울컥하며
이게 선배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기분이구나 싶더라. 아빠
는 엄마 달래느라 아닌 척하시지만 늘 네 생각 뿐이시란다. 이
것 저것 챙겨주고 간섭하고 싶지만 이젠 그럴 수도 없고 그래
서도 안될 것 같다. 이젠 정말 너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기
도로 너를 맡기기로 다짐하면서 다음의 당부의 말을 보내니 마
음에 새기고 활기찬 대학생활을 시작하기 바란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
전도서 12:1)”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처럼 고생하며
일궈낸 대학입학, 진심으로 축하하고 정말 우리 아들 자랑스
러워. 이젠 그 고생의 땀가처럼, 수많은 기회와 유혹을 실은
만남들이 너에게 밀려 올거야. 혼란스러운 만남 가운데 네가
무엇보다 해야할 것은 네가 지금까지 커오면서 만난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는 것이란다. 그럼으로써 ‘나는 누
구인가’ 를 확실히 깨닫는거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
고린도전서 15:10)” 미국에서 엄마, 아빠의 삶 속에,우리 가
정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쿤장 고등부까지 주일학교 전도사님
과 선생님들을 통해 만났던 하나님 기억하지?

다음은 두려워 하지 마렴.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
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사야 41:10)” 대학은 ‘만남’ 의 광장이라한다. 학문과의 만
남, 사회와의 만남, 스승, 선배, 친구와의 만남 등등. 우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많은 만남 속에 네가 어떻

게 할지를 알게
될테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그러므로 만남의
순서가 중요한거
야. 하나님을 먼
저 알고나면 세
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와 방법을 알
아 보게 되는 거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네 앞에 펼쳐진 만남의 광장, 대학에
서의 야망찬 삶을 enjoy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비
상하려무나. 하나님을 알고 독립적이며 자상한 우리아들을 엄
만 믿어. 잘 해 낼 수 있을거야. 더 많이 자라 있을 우리 아들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Shalom!!



조심스레 갈대

제 딸아이의 이름은 김에스터입니다.
이번 가을학기에 대학입학을 하여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홀로서기 중입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우연히 그곳은 저희 남편이 30대 때 일 때문에 한국에서 미
국을 방문하여 지냈던 곳이고, 당시 받은 그곳의 깊은 인상 때
문에 간혹 그곳을 이야기해 주어서 저 또한 마음으로 동경하
고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의 작은 그림을 마음 한구석에 담고 이민생활을 시
작하여 어느덧 2016년 가을이 되었는데 20년이 훌쩍 지난 시
기에 딸아이가 그곳에서 대학생활을 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
하지 못하였습니다. 딸아이가 독립하여 지낼 새로운 곳에 대
해 아버지인 남편이 먼저 알고 안내해 줄 수 있게 된 것도 하

가을은 내가 또 우리가 살찌는 계절

김홍덕 권사

유난히도 더웠던 2016년 무더위의 기세가 조금씩 누그러지
고 있다.
원래 먹는 것을 좋아하고 음식에 대한 동영상을 즐겨 보는
나에게는 이 가을의 문턱이 반갑기도 하고 또한 무섭기도 하
다. 이유인즉슨 날씨가 선선해지면 왠지 맛있는 새로운 음식
을 먹어줘야만 할 것 같은 설렘이 생겨서 단조로운 나의 일상
이 바뀔 것 같은 기대감에 이 가을이 반갑기만 하다. 하지만 하
늘 높은 줄은 모르고 땅 넓은 것만 아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벌써 걱정 반 고민 반이다. 이미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와 있
는 나인데…..
이러던 차에 “제자훈련과 영성훈련” 이 9월 1일부터 시작하
다는 광고가 눈에 들어 왔고 고민할 여지도 없이 신청서를 작
성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했
다면 훈련을 기다리는 마음도 편안해야 할 텐데 왜 아니지???
“괜히 빨리 신청했나? 생각을 좀 더 해 보고 한다고 할걸 그
랬나…... 계속해서 시간에 쫓겨야 할 테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훈련이 열매로 이어지는 과정이나 통로가 아닌, 의미 없이 힘
들게 끌려가는 훈련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과 걱정이

이어졌다. 제자훈련 후, “영성훈련 때는 더 열심히 훈련에 임
해서 나의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라고 결
심했었다. 그러나 한국학교 준비 시간과 겹쳐서 한 번의 기회
를 놓쳤기 때문에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나 자신에게 많이 놀랐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덤고 습한
날씨에 지친 우리에게 장대 소낙비를 주심으로 잠시 바람과 습
을 주시듯이 그분의 시간이 되었기에 이번 훈련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풍성한 식탁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몸은 많
이 바쁠 것이다. 하지만 영성 훈련 기간 동안 주실 은혜의 소낙
비에 흠뻑 몸과 마음을 적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미쁘신 뜻을
따라가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며 훈련에 임하고 싶다. “영
성훈련” 타이틀만 들어도 벅차지 않은가 그 이름대로 나의 영
성을 깨우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것을 믿는다.
이 가을에 주의 말씀으로 영을 살찌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한다.

상자를 물에 띄웁니다

김영숙 집사



나님의 계획으로 이미 오래 전에 인도해 주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아래 이루어짐을 깨달으니 살아
계셔서 끝까지 어디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느낄 수 있
었습니다.
평상시 저희 딸 에스터는 화려한 대도시인 뉴욕을 사랑하였
습니다. 어려움 없이 편안한 공주 같은 생활에 길들여져 있어
늘 그 아이의 앞날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성품을 조
금이나마 잠재워줄 지방의 조그맣고 조용한 시골(피츠버그)로
학교가 정해지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으로
깨닫고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엄마아빠의 품을 떠나 기숙사생활도 시작이고, 교수님
과의 만남도 시작이고, 룸메이트와 학교 새로운 교우들과의 만

남도 시작됩니다. 새로운 환경
으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지
방 도시 피츠버그와에서의 생활
도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새롭게 접하는 환경이전에 부모와 떨어
져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조용
히 딸 아이와 하나님의 만남이 어떻게 이뤄질까 마음속에 그려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었던 믿음의 갈
대상자를 정검 해 봅니다. 나름대로 가까이 교사로도 봉사하면
서 세세히 살폈다고 하지만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조
심스레 물에 띄워 봅니다. 빈틈 많고 나약한 갈대상자 위에 기
도의 무릎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제자훈련·영성훈련을 시작하며

홍승룡 장로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9월 1일(목)부터 제자훈련 6기와 영성훈련 4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퀸즈장로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이 30년이상 제자훈련 사역을 감당하신 김성국목사님을 본 교회로 보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가운데 제자훈련, 영성훈련, 사역훈련으로 전 교인의 그리스도 제자화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부터는 봄훈련을 3월 첫째주 목요일로 가을훈련은 9월 첫째주 목요일로 확정함으로 앞으로 훈련을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영성훈련의 목적은 내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개성있는 영성개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은 14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안에 중심되신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성령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사역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영성훈련도 14주로 그리스도를 본 받는 삶, 모범되신 그리스도, 사명의 확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기도 훈련, 팀워크, 세계선교, 성품, 윤리, 청지기, 지도자를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 14주 동안 친구약 성경 1독, 성경 22구절 암송, 영성일기 6일 관찰 일기 1일, 큐티 3일, 기도 하루 20분이상, 교재 과목하기, 신앙 서적 1권 읽고 독후감 쓰기 등의 숙제가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숙제들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한가지 숙제를 하는 동안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와 기쁨과 희열과 감격으로 바뀌어 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제자훈련 수료생은 243명, 영성훈련 수료생은 107명, 사역훈련 수료생은 16명입니다.

특별히 모든 제자들께서는 꼭 제자훈련을 받으시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자, 영성훈련을 받는 동안 시간 시간마다 주시는 김성국담임 목사님이 열정의 강의 속에 리더들과의 교제속의 만남을 통하여 샘솟듯 솟는 복음의 능력이 사랑의 열정으로 승화되어 예수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퀸즈성인대학 가을학기를 맞이하여

이양미 전도사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드디어, 퀸즈성인대학 가을학기를 2016년 9월13일 10시30분에 개강합니다.

오인수 목사님과 함께하는 경진예배를 통해 진정한 마음의 심을 얻으시고 새롭게 영입된 조지영선생의 신나는 건강체조로 학우들의 몸을 더욱 튼튼하게 유지 시키십시오.

무릎, 어깨, 팔, 다리 군데군데 자주 쭈시고 결릴 때 안현준 교수의 수지침 클래스 에서 실제적인 실습을 통해 나 자신이 침술사가 되어보십시오.

신세대 교수 신성근 교수가 이끄는 스마트폰 시간엔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세련된 테크닉을 습득하셔서 젊은이들과 마음놓고 소통해 보십시오.

한 코라도 빠뜨리면 에누리 없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꿈꿈함의 대명사 김은숙 교수와 함께 이번 학기에도 한땀 한땀 수고로움으로 예쁘고 따뜻한 털목도리나 장갑, 조끼를 떠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여성 학우들 틈 사이에 홍일점 권영치 학우님이 수강하는 박

열린유아원 가을학기를 시작하며

이명옥 전도사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열린유아원’을 설립하고 무료로 봄, 가을에 열리는 유아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일에 쓰임 받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열린유아원’은 그 이름처럼 만 2-3세 미만에 해당되는 모든 유아와 그 부모(보호자)를 위하여 무료로 열려 있는데 기독교 교육 철학에 바탕을 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과 이를 돕기 위한 바람직한 부모(보호자)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 25년간 빛도 없이 수고해 주신 많은 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심을 감사하며, 이번에도 수고하실 많은 교사들을 위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교수님의 미술교실에 남성 학우님들의 등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현 교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영어는 더 이상의 부연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오셔서 들어보시라니까요.

기대 하십시오!

각 분야의 준비된 교수님들의 열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있을 단풍관광은 도심지를 벗어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만끽하고 즐길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또한, 최고의 주방장님의 홈페이지드 점심식사는 성인대학에 등록하실 모든 학우님들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질 것입니다.

이 가을에 퀸즈성인대학에 등록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보십시오.

이번 가을학기에도 필요한 유아들이 많이 등록하여 좋은 교육을 받고 이 시대를 열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 교육 내용

– 예배 Worship Service / 찬송, 기도, 말씀을 통해 어려서부터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 음률활동 Rhythm / 찬양과 율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고, 교육적인 노래를 통하여 음악적 감각의 발달과 정서적인 교육을 통해 이를 잘 표현하도록 돕는다.

– 한글 Korean / 듣기, 쓰기, 말하기, 발표하기, 한글 노래 및 부르기를 통해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고, 한글을 잘 배우고, 우리말을 잘 사용하도록 돕는다.

– 산수 Math / 도형 인식, 수의 개념 등을 심어주어 논리적, 수리적 사고력을 갖도록 돕는다.

– 영어 English / 영어노래, 단어 익히기 등을 통하여 듣고, 말하고, 쓰는 능력을 길러 주며 나아가 앞으로의 학업(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신체운동 Physical Exercise / 다양한 형태의 게임과 운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 발달과 질서 지키기, 협동심등을 기르는 훈련을 한다.

– 특별활동 Special Activity / color parade와 cooking class, market play, roll play, gym day, 동물 축제, 인형극 등을 통해 생활과 감각을 통한 교육, 사회 교육 등을 실행하고 오감을 통해 배우는 연령에 맞는 교육을 극대화 한다.

– 손 대화 signing communication / 어린 아이들과의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는 때에 눈높이에 맞는 대화와 집에서 부모들이 놀이를 통한 학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언어를 습득하기 전 다양한 flash card 와 signing work를 배우며 언어 영역을 높이도록 돕는다.

* 교육 기간 : 매 학기 14주 (봄, 가을)

* 교육 시간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정오

* 교육 장소 : 퀸즈장로교회 유아부실(2층)

* 부모 교육 : 꽃잎, 열매반의 부모 대상- 전인적인 신앙교육, 공립학교 교육실태, 건강교실 등

“1>100, 1이 100보다 큰 이유”

최원일집사/전도폭발위원장

“전도와 전도훈련은 지구전입니다. 중간에 그만 두지만 않는다면 이기는 싸움입니다.”

매 학기 전도폭발훈련을 준비하는 이들이 다시금 신발끈을 짊끈 동여 매는 이유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전도폭발훈련에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훈련생을 모집 하는 일 입니다. “충성할 사람, 집중할 사람, 배워서 가르칠 사람” 을 찾아 내고 그들이 훈련의 장으로 나올 수 있게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훈련의 모든 과정이 그렇지만, 훈련생 모집 과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번 학기에도 열 명 가까운 훈련생을 보내주셨습니다. 전도폭발훈련을 할 수 없는 “100가지 개인적인 이유” 를 “주님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이 그 1백가지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라는 결단 하나로 물리치고 나온 이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환영합니다.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이야” 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신입훈련생들의 그 아름다운 결단을 외면 할만큼 ‘모질 지가 못해’ 다시 훈련자로, 준훈련자로, 교사로 이 훈련에 동역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다 잊어도 주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전도자로 세워진 이들이 지난 여름 뿌린 복음

의 씨앗을 주님은 또한 기억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땀과 폭염속 분주한 플러싱 메인스트릿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부모에 의해 버려지고 사회에 의해 방치된 인도의 카맘 지역 작은 마을 고아들에게, 우상과 가난에 신음하는 캄보디아 시엠립의 수 많은 아이들에게 어린이 전도폭발을 매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눈 이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 여름밤의 이야기로 우리의 기억에서는 머지않아 사라져 간다해도 주님만은 그 소중한 복음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퀸즈장로교회의 전도폭발훈련, 26년간 52기라는 숫자의 전통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상 “디제임스케네디상” 수상의 명성에만 기대지 않겠습니다. ‘다민족복음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플러싱에 세우시고 이날까지 이곳에서 부흥하게 하신 섭리에 순종하며 뚝뚝뚝 그 길을 걷겠습니다. 쉽지않은 훈련이라는 평판 때문에 많은 이들이 훈련을 주저하고 있지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결단하게 하시고, 그 형편들도 풀어주실 것을 말합니다. 단 한 명의 훈련생을 훈련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훈련을 멈추지않겠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이기는 싸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Growing seeds into trees...”

차평화 전도사

Hello! My name is Pastor Nate Cha and I have the privilege of overseeing the AWANA ministry this year once again. There is so much excitement working with the children, not only when we see them memorize bible verses or work together on activities, but in the proposition of what they might become one day. At the grades of Pre-K to Fifth Grade, we do not know what our children will become. We can only pray, hope, and be diligent in building them up. In the hopes of raising a giant plant, a farmer will take care of a seed, with water, sunlight, soil, and care. He does not know how big it will grow to be nor the fruits it will produce, but in anticipation of what it might be, he labors diligently in its early stages. Working with our children feels this way. It is our third year of AWANA at our church, and each time we begin, the excitement of Spring and of planting new seeds fills our hearts. We do not know what our children will become, but we do know how important it is to care for them in the early stages. The farmer gives the various nutrients that the seed needs; however, it is the water, soil, and sunlight which help the seed to grow. In that same sense, we understand that it is not us, as the ultimate end, which will help the children to grow, but rather what we can provide them. In Psalm 119:11 it says “I have stored up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At this age, our children are in the process of storing God’s word in their heart. By implementing a three part curriculum, our children will learn Bible stories and concepts in a large group setting, memorize scripture in a small group setting, and have fun while building character and teamwork during our activities time. We know the dangers of trying to simply force the word of God upon the

hearts of our children. In a time and society where our children are being taught to quickly acquire skills and knowledge before falling behind the curve, the concept of rest is quickly fading from their understanding. Running from violin practices to soccer games, and from hagwons to camps, rest has become a forgotten pastime for our children and youth. The same goes in regards to the “spiritual” elements of their lives. Where when turning to the word and coming in prayer were once ways to know God and find rest in Him, they have become a part of a “things I have to do” checklist. With this in mind, our AWANA ministry will seek to restore the joy of God’s word in the heart of our children. We are excited this year to not only grow in knowledge of God’s word, but to grow together in the grace and love that His word provides. We pray that through this year, our children would be growing as seeds into trees, both in knowledge and in love.

We ask that you would pray this year with us:

Children: Please pray that our children would grow hungry for God’s word and that God’s word would be engrained in their hearts at an early age. That the knowledge they have would turn to faith.

Families: Please pray that Christ centered families would grow through this program and that fathers and mothers would grow more invested in the spiritual growth of their children

Teachers: Please pray for strength, encouragement, and a heart to love the children as they serve.





Being Part of Something Great!

My summer began as if there was no change from last year. It was hot, humid, and of course summer school. I spent the first two months of the summer attending school and taking few day trips here and there, but the most memorable time came unexpectedly. The church provided an opportunity for our students to be part of the summer music camp. The younger kids (Ainos II) practiced and had an amazing concert on their own. Us, older kids (Ainos I), were part of the something great, NYLO orchestra. At first, I was pretty nervous playing the instrument with students who are much older. Every night, I prayed for the strength and confidence so that I can belong in the group.

As meetings and practice sessions grew, I began to realize that NYLO orchestra has improved not only my violin skills, but my relationship and desire to honor God with all my heart. Playing an instrument isn't just for my pleasure or enjoyment for others, but another way praise and glorify His name. As I'm about to close the summer, I would like to thank the church for the opportunity to be part of this program. All talents given from God are all to glorify His name. Playing the violin and being able to play in orchestras has been a gift from God to serve Him. Getting to know God through music has given me the opportunity to open up to Him more.

In the beginning of the music camp, I wasn't too excited because I thought there wasn't a clear purpose for me, except to gain knowledge and skills. Through Pastor Nate's sermon, God made me realize that participating in the NYLO orchestra was for God, and His glory only, and that I should be thankful for my skills that He has blessed me with. Although there were challenges playing along with others, I knew that I was doing this for God's glory, so I did my best, never gave up, and followed all instructions diligently. The members and teachers of NYLO has had a massive impact on my violin skills and helped me reach out to others as well. It has been an honor to be part of such an amazing orchestra. The concert on Saturday, August 27th has been a great success and God's name has been glorified that night.



Karis Park



After Summer Music Camp

Thank you Lord for letting us have music camp and thank you for 김성국 목사님 and KAPCQ members who operate the Ainos, PTA and NYLO. Because of these people we learned how to play music to the Lord also thinking about the Lord thru the music. The camp was a fun experience because, we practiced the three songs which is "Can Can", "If I go to the Jesus", and "Habanera from Carman" within four days. That was a lot faster than we usually practice on Sunday. During the Service, 김 목사님 said "Small things can become a big thing that we never imagined." I agreed with him, we just have to try and try and make it right. If I have another chance to join the camp, I'll join and play the Violin with other camp members again.

Serene Sung





The Blessed Start

Shen De Guia- Director of Multimedia Ministry & Administrative Assistant for QPEM

Hello everyone! My name is Shen De Guia, and I'm the new multimedia director and administrative staff for QPEM.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to our Senior Pastor, Reverend Seoung Kook Kim, Elder Seong Ho Jeong and English congregation Lead Pastor, Reverend Peter Kim,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serve and become a part of this wonderful church.

I'll be sharing with you a little about myself and the journey that God has brought me here to QPEM.

My father invited me to QPEM during my vacation in the United States back in 2012. I didn't know anyone back then, but my father urged me to go to the Wednesday prayer night gatherings and Sunday worships. I began to attend QPEM regularly and started to build friendships in the ministry. Pastor Peter eventually found out that I had just graduated as a graphic designer and asked if I could design a new QPEM logo. The logo creation had a favorable outcome, and

I just put my faith in God to volunteer for the Pixels ministry -which handles all the creative and multimedia aspects in QPEM.

This was the first time I've ever used my talents to serve God, and it felt amazing! I was very much on fire when I went back to my home country, the Philippines. And I used that passion to serve tremendously at our local church, and to harness God's gifting even more.

Every year that I got to visit QPEM, I volunteered my skills and shared creative inputs on how to strengthen the ministry. It's my personal belief that media within church isn't there just to stimulate our visual senses. God has no limits and no restrictions when it comes to revealing His Presence, and church media should be a vessel to move and encourage people spiritually.

I was thrilled when Rev.Kim and Pastor Peter invited me

to serve full time at church. They shared with me the vision and future plans for the church as it strives to grow into a multicultural congregation. It was also in our leadership's intention to bring my family closer together. I'm very thankful for the leadership of our church and to have Pastor Peter minister and support me on this.

The whole process of moving to New York took tremendous effort, prayer and patience, but God is with us as He has always been. And I can say with confidence that I am exactly where He wants me to be right n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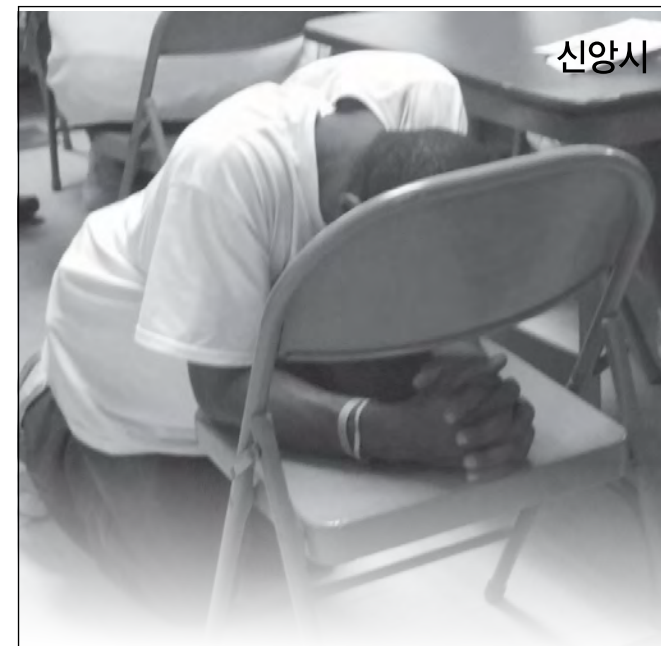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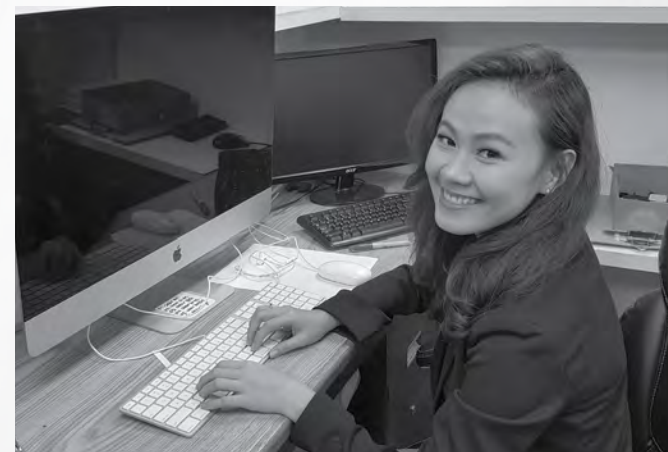
In 1 Chronicles 28:20, God impressed upon me to "Be strong and courageous and do it. Do not be afraid and do not be dismayed, for the Lord God, even my God, is with you. He will not leave you or forsake you, until all the work for the service of the house of the Lord is finished."

There is work to be done here to further His kingdom. He will take me out of my comfort zone, and I will learn to trust in Him completely. Whatever I'm lacking, He will provide. And whenever I need help, God assures me that He will send brothers and sisters to aid me in accomplishing His work.

It's been a month since I started officially, and what a privilege it is to serve with kind and passionate people! Most especially with Pastor Peter and Pastor Kiwi who are both leading the English congregation to new heights.

The best is truly yet to come for all of us, and I humbly ask that you continue to pray for QPEM as we start a new chapter again in our ministry. And pray for me, as my everyday goal is to simply create from an honest and passionate place in order to inspire others to live a beautiful and Christ-centered life.

All praise, honor and glory to His Son, Jesus Christ.



주님께 드리는 3분의 호흡

3분 동안 우리의 입술을 빌려
선포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

가시덤불 깊은 곳 길 잃은 걸인
그렇게도 기다리신 고통으로 낳은 자녀

어둠 해매는 상처 보듬어 안으시고
되찾은 영혼 기쁨의 잔치 나누게 하시니

꺾인 무릎 의지하며 엎드린 의사
주님의 넓은 가슴 되어 받아주시는 뜨거운 눈물

굳게 껍지 낀 손 위에 토해지는 회개의 젖은 한숨
주님이 불어넣어주신 생기를 기억케 하시고

흔들리는 어깨 가쁜 흐느낌에
주님의 두 팔이 요람 되어 베풀어 주시는 평강

잃었던 자식 품에 안고
함박 미소 지으며 돌아보시는 주님의 눈물

품으신 사랑에 내 가슴 아리어 먹먹해 지며
주님의 그 애달픔이 내 사명 되어

영생 허락하신 나의 호흡에 이제
수천 번의 3분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소서

지금의 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现在的我、全是上帝的恩典



爱是恒久忍耐，又是恩慈；爱是不嫉妒，爱是不自夸，不张狂，不做害羞的事，不求自己的益处，不轻易发怒，不计算人的恶，不喜欢不义，只喜欢真理；凡事包容，凡事相信，凡事盼望，凡事忍耐。（林前13：4-7节）
这是我最喜欢的一段圣经经文，我觉得成为基督徒是今生最幸运的事情。每天的生命气息再也离不开神的话语了。神的话语让我明白如何去爱，什么是真正的爱，因为神就是爱。每天都期望神能与我同在，因为我希望神能做我最亲密的朋友。

来到韩中长老教会也快有四年的时间了，信主也有这么久的时间了。依然还记得第一次经历神的那个清晨。我和母亲来到早祷会，当教会的圣乐响起，我那破碎的心被完全的征服了。我的眼泪没有理由的流下来，我的内心感动到不行，我不知道那是圣灵的抚摸和感动，我只是觉得那种感觉真的很平安，很温柔，很喜乐。我觉得全世界只有这位存在可以倾听我的声音，我不需要隐瞒，我只需要坦白。感觉神可以诚然担当我一切的心事和负担（祂诚然担当我们的忧患，背负我们的痛苦；以赛亚53:4a）那是我第一次明白这原来就是祷告的力量,那种会让身心灵特别轻松的感觉.从那以后我开始了频繁参加早上的祷告会，想去更多的经历神，想让神能更多的给我安慰。我原来是一个内心如此弱小和脆弱的人啊，只是我一直不敢面对自己的内心，也没有一个人能如此彻底的可以明白我的心。有种可以全然交托，完全可以相信的依靠。无论我是什么样的人，感觉神都不会嫌弃我，也不会将我的心事告诉其他人，我在神的里面找到了前所未有的安全感和喜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13:4-7）
이 성경구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말씀입니다.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것이 제 생애 가장 큰 행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고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퀸즈장로교회에 온지 거의 4년이 되어가 예수님을 믿은지도 4년이라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아직도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새벽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새벽기도를 참석했는데 찬양반주가 흘러나오자 그 때에 상처로 가득했던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마음에는 감동으로 가득찼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이었음을 미처 몰랐던 저는 그냥 너무나도 평안하고 따뜻하고 기쁜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분의 존재만이 제 깊은 마음속의 애기들을 들어주시므로 저는 더이상 숨길 필요가 없이 솔직히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저의 모든 고민과 짐들을 짊어져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53:7)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영과 육이 매우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새벽기도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싶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마음이 쉽게 상처받고 두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고 또 그 어떤 누구도 제 마음을 모두 알아줄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는 저를 싫어하지 않으실 것이고 제 애기를 다른

信主之后，生活和生命有了很大的改变。每周主日都会特别期待早点到来，会很渴望的想要参加教会的活动，很喜欢和弟兄姊妹们在一起相交的属灵时光。那个时候的我，就好像一块海绵一样，很渴望吸收更多关于神的一切知识，就好像一个刚出生的宝宝一样，特别希望灵命能快点长大。我本来就是一个特别容易感动流眼泪的人，初信时，不知道流过了多少眼泪，每一首诗歌都会让我感动好久，每一段经文都会让我感动雀跃久久不能自拔。但是，我知道那眼泪不是伤心的眼泪，而是幸福和满足的喜悦。
信主差不多的一个月后，迎来了教会韩文部青年团契的冬季退修会，那个时候我不知道退修会是什么，但是我就是很想去，而这一次的前行，让我受益匪浅。和青年人在一起是很积极，很正面，很开心的经历。每天早上要很早起来参加小组灵修，那个时候我连圣经旧约新约都还分不太清楚，但是很享受这种学习的氛围。我渴望了解更多，我渴望能更加的知道神。最后一天的退修会晚上，我们一起祷告，那一夜我真正的经历了主耶稣基督的真实。在我面前原本只是一个简单的十字架，当我睁开眼睛看那十字架上却有耶稣为我钉死在那，我放声痛哭，那一刻我真正体会到我是一个罪人。我感激主耶稣基督为我做的一切。再次祷告后，我睁开眼睛，看见主耶稣基督从十字架下来，将十字架背在了自己的身上。那时我哭的更加的严重，我明白了主耶稣基督已经背负了我一切的罪，我可以真正的得自由释放了。哈利路亚，感谢赞美主！等我情绪稍微稳定下来后，脑海中一直反复出现一个声音，就是马太福音5章7节。我是一个初信者，还没来得及读所有的圣经。但是那晚，脑海中不断的出现这段经文；（怜悯人的人有福了，因为他们必蒙怜悯。马太福音5：7）回到宿舍，我就仔细看这段经文，我知道这是神给我的话语，我一定要把这句话活出来。

时间飞转，我接受了属灵的装备，接受了圣灵和水的洗礼后，也开始在教会里服事。感谢神给我的恩赐，能够在教会的诗班服事，可以用歌声来敬拜赞美神是何等的恩典。

一年半前韩中长老教会，中文堂正式成立，这在

사람에게 할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게되고 나서 제 삶과 생활 속에는 너무나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주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교회에서 열리는 여러가지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며 또 형제 자매들과 어울려 나누는 교제의 시간도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 때의 저는 하나의 숨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지식을 흡수하기를 갈망하며 갓태어난 아기처럼 영적 생명이 빨리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저는 예전부터 자주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고 했었는데 처음 하나님을 믿고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모르겠습니다. 찬양 한국 한국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구절 한구절 읽을때마다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 때문에 한참동안 눈물을 흘리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과 만족과 기쁨에서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지 한달쯤 지났을 때 청년부겨울수련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수련회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떠난 그 수련회에서 저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한 수련회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많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큐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에 저는 성경 속의 구약과 신약도 구분할 수가 없었지만 함께 배우고 나누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었고 더 깊이 알고 싶었습니다. 수련회의 마지막날 밤에 모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깨닫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앞에 그냥 보여지던 십자가인데 눈을 뜨는 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며 순간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며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저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 지셨으므로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조금 가라 앉힌 후 제 머리 속에는 계속해서 음성이 들려 왔는데 마태복음 5:7절 말씀이었습니다. 초신자여서 성경을 일독 해 본적도 없었지만 그날밤 제 머리속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맴돌았습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5:7) 숙소로 돌아온 후 저는 성경을 찾아보고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영적으로 무장하여 성령과 물로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저는 찬양대에서 섬기게 되었는데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일 년 반 전 퀸즈장로교회의 중국어 예배부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습니다.

整个韩国社区也是一件了不起的事情。感谢神给我们主任牧师的异象，为了多民族宣教的缘故，兴起了不同语言的崇拜。感谢神能够让我和其他弟兄姊妹一起参与到中文堂的建立和筹备。虽然不知道我们的将来会如何，但是凭着祷告和信心，我们一起为中文堂复兴努力。感谢主，通过在韩文部的磨练和预备，再到中文堂的服事，我深刻的感谢神对我的拣选。（不是你们拣选了我，是我拣选了你们；约翰福音15:16a）能做神的子女是何等的恩典和荣耀。

神给每一个人的恩赐都是不一样，能在服事中更好的去经历神，去明白神的旨意是让我最喜悦的事情。能够在中文堂服事敬拜小组和诗班，在韩文堂服事诗班，是神给我的恩赐。我每做的一点服事都是神给的恩典和权柄，在服事中能真正学习虚心谦卑做事做人。今天我能够摆上的所有事奉，都是神的恩赐和恩典，所以在神面前都不可夸口。一切的经历和磨练都是神乐意塑造我的心能够更像耶稣基督。

敬拜和赞美永远都不止于教会，无论何时何地，做任何事情，只要以耶稣为中心，将一切都献给主，就是一种敬拜和赞美。因为耶稣基督是世界的中心，宇宙的中心，我生命的中心。

直到今天，神给我的爱都是源源不断的。在服事的日子充满了喜乐，在生活中也处处充满了神的恩惠。神是信实可靠的，因为祂垂听我每一次的呼求和祷告。每一次神都给我安排最好的；最好的教会，最好的家人，最好的朋友，最好的学习条件，最好的使命和最好的梦想。

以前不敢做的梦，不敢想的祷告，相信在神的安排和带领下，神会给我开路。（你们要先求祂的国和祂的义，这些东西都要加给你们了。马太福音6：33a）

神让软弱的变刚强，贫穷的变富足。每一天知道神的旨意，每一天我的生命不再一样，因为有主在我里面活着。最后想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전체 한인사회에서도 큰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담임목사님에게 다민족 선교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셔서 여러가지 언어로 예배를 설립하게 된것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드릴 것은 여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중국어 예배부 설립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항상 기도와 믿음으로 중국어 예배부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어 예배부에서 많은 훈련과 예비하심으로 중국어 예배부를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저를 택해주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15:16a)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영광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 다릅니다. 섬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기쁜 일입니다. 중국어 예배부의 경배 찬양팀을 섬기고 또 한국어 예배부의 찬양팀에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입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어떤 작은 섬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권세입니다. 섬김 속에서 저는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섬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일들과 그속에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더욱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예수님을 중심으로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경배와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의 중심이며 우주의 중심이며 제 생명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각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섬김의 시간동안 기쁨이 있었고 생활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매번 저에게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교회와 최고의 가족과 최고의 친구들과 최고의 학습 조건과 최고의 사명과 최고의 꿈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꿈과 기도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자를 부하게 하십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매일의 저의 삶은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우리의 삶과 재능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한 여름의 열기가 더해가는 8월 10일 수요일 예배는 아주 특별하고도 인상 깊은 밤이었습니다. Kindergarten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 고등부 학생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특별활동 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몸과 마음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교회 특별활동 위원회 (Ainos Youth Orchestra, G2G 합창단, 하랑예찬 – Body Worship, AWANA)에 속한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본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한 예배의 첫 순서는 경배와 찬양으로 하랑예찬 팀이 새로 구성된 어린 팀부터 세 팀이 차례로 나와 멋진 울동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효리(G2G), 신재하(하랑예찬), 이동규(Ainos)학생들의 각각 은혜로운 간증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재능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후에 차평화 전도사님께서 “Don’t waste your life” (요12:1-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매우 귀하고

값진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마리 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과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며 영광 돌리라는 귀한 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후에 헌신 찬양으로 Ainos Youth Orchestra의 멋지고 수준 높은 연주와 G2G합창단의 힘차고 아름다운 합창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육부는 이처럼 많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발표력 향상과 단체 생활을 통한 훈련과 협력을 배우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크리스천 리더십을 갖는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각자의 학교에서도 두드러진 우수한 학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귀한 재능과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주님께서 더 귀하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더욱 많이 참여하여 믿음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성도들이 뜨거운 관심과 기도를 함께 해야겠습니다. [편집부]

청년선교부 여름 수련회



역사상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그것은 십자가로의 초대입니다. 여기는 누구나 초대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초대의 길로 들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전심을 걸어야 하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쉬지 말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쉬지 않고 들어주겠다는 것이고,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면 결단해야 할까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십니다. 같은 빵을 구해도 왜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재정을 구해도 왜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지음 받은 삶인데, 어떻게 부질없는 것에만 힘을 다해서 사느냐’ 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목적을 기억해라! 너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충족될 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의 태도와 목적이 분명해지고 확실해 지면 그 때부터 혼돈이 없습니다. 일관성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분명해집니다.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의 확신



“그로 쉬지

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뜻이 정해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절대 중간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2:1-7 말씀은 하나님과 자녀 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특권인 기도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부여해 주셔서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나는 그 기



못하시게 하라”

도에 대해서 쉬지 않고 일하겠다, 너희의 기도가 나를 일하게 한다” 라는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일을 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능력을 입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비전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서 부어지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만 부어집니다. 십자가를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 보지 못한 사람, 십자가의 진리 안에 자신의 삶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만 사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내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단순히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이 큰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감동도 받지만 우물쭈물하고 날마다 결단을 뒤로 미루는 이런 인생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결론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값으로 사신 여러분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결단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을 움직이길 바랍니다.



국민 교육발전 유공자포상 대통령상 수상자 최윤희 권사

권.장의 성도인 것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2016년 8월 4일 뉴욕 총영사관 9층 회의실에서 본 교회 최윤희 권사가 국민 교육발전 유공자포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전 수식을 가졌다.

최권사님은 플러싱 181 중학교 학부모 조정관(코디네이터)과 뉴욕한인학부모협회 공동의장으로 지난 20여 년 간 한인학부모 협회를 이끌며 설날 휴교일 제정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병기 활동,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 일본 전범기 퇴치 운동 등 수많은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셨다. 이번 수상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한인 2세들의 미래 교육과 한인들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지난 해 5월에는 뉴욕 주 상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과 공헌을 한 여성에게 주어지는 ‘올해의 탁월한 여성상(Women of Distinction Award)’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최권사님은 1983년 10월에 도미하면서 곧 바로 본 교회에 등록한, 4대 째 내려온 믿음의 자녀로 처음 그를 대하는 분들을 여러 번 놀라게 한다. 우선은 권사님의 패션에 놀라고, 새벽제단을 지키는 신앙생활에 놀라고, 성령이 원하시면 맨 앞줄에서 별떡 일어나 뛰는 신명난 춤 솜씨에 놀란다.

부군 리처드 칼리간과의 사이에 두 딸 사라와 레베카를 두신 권사님은 크리스천의 행동하는 신앙을 중히 여기시며 매일 새

벽 제단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안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 담대히 나가신다고 한다.

특별히 한인들의 정치나 교육의 참여도에 미진함을 안타까워 하시며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교회의 결집력으로 대통령을 배출한 것과 적극적인 중국인들의 참여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자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면서도 구전으로 전해지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여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보며 협회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많은 기회에 참여하고 입지를 넓혀 아이들에게 경쟁력을 갖게하고 자신감 있는 리더쉽을 가진 자녀로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뛰어난 한인 개개인들이 단체나 교회를 중심으로 합쳐 협력된 힘을 과시하면 미국 사회에서도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고 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하셨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의 명령대로 모든 땅을 밟아 크리스천의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그런 맥락에서 오랫동안 권사님이 염원해왔던 교회의 모델로 지난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에서의 전도집회(Gospel on Main Street) 등으로 행동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로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보여 준 퀸즈장로교회의 성도됨을 감사하며 자랑스러워 하셨다.